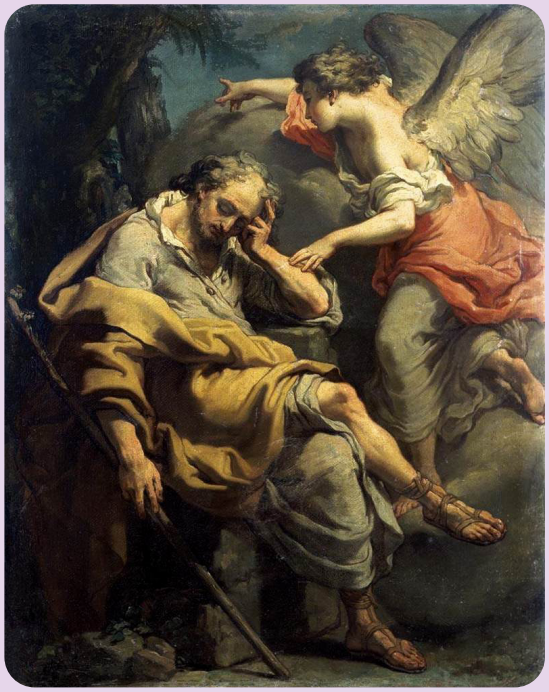
가해·제2358호

대림 제4주일

2025년 12월 21일

춘천주보



가에타노 간돌피
〈요셉의 꿈〉
1790년경,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목 차

02 말씀의 향기
요셉의 응답을 배우자

03 사제 단상
이어지는 생명

04 특집
춘천교구 기억의 서랍을 열다 29

05 교구 소식
2025년 부제 서품식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이사 7,10-14

화답송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2독서 로마 1,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음 마태 1,18-24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발행인 김주영 · **편집** 홍보실 · **주소** (24338)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00 · **전화** 033)240-6012 · **팩스** 033)240-6013 · **이메일** ccjubo@gmail.com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요셉의 응답을 배우자

프란시스코 데 에레라 2세 〈성 요셉과 아기 예수〉

최창덕 프란치스코 신부
솔모루 본당 주임

찬미 예수님, 성탄을 앞둔 이번 주일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1. "사랑이 없는 정의는 냉혹한 폭력이 될 수 있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한 애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당한 정의는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하고, 진정한 사랑은 보편적인 정의를 동반할 때 더 많은 이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간의 이런 '밀접한 관계' 에 근거하여 요셉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처한 신앙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의로운 사람' 인 요셉은 평생을 살면서 율법의 정신인 하느님의 의로움을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식 혼인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남모르게 파혼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으로 "생각을 굳혔을 때" -많은 고민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완전히 끝냈을 때-하느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하느님께서도 그와 같은 결정과 선택을 하셨을지 반드시 한 번 더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배웁니다.

3. 주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메시지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호하고 기르는) 임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와 함께 태중의 아기 예수님까지 살리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은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4. 천사는 1독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고 요셉에게 알렸는데, 이 말씀 후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고 곧장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즉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이며 잠에서 '깨어난 사람' 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모든 가치관, 이념, 판단을 전부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서 철저히 새롭게 깨어났습니다. '세속' 이라는 잠에서 깨어나 영적인 차원에서 참 신앙인으로 "부활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며 이로써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강생 신비" 가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5. 대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요셉의 변화를 본받아 삶의 회개와 쇄신을 통해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현존' 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 으로서 세상 구원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더 많이 봉헌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더 힘써 봉사하며, 하느님 나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더 노력할 때 요셉이 했던 "응답의 열매" 가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한 체험은 지금도 사랑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제·단·상

이어지는 생명

최근 영화 한 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엔딩노트' 라는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정년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암 4기라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의 질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죽음을 받아들이며 여느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며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해볼 만도 한데, 주인공은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좀 더 신경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아닌 '엔딩노트' 를 만들어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 엔딩노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녀들과 한 번 더 힘껏 놀기' 라든지, '쑥스럽지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입니다. 그렇게 69년의 생명을 마치는 주인공,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산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영화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물음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죽음을 인지하는 행위 속에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존철학의 대가로 알려진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생의 의미이며, 생의 완성이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에 대한 예감을 통해서 세계와 자기의 본모습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라고 말입니다. 위 영화는 그렇게 남자 주인공의 엔딩노트가 주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해줍니다. 주변 이들도 죽음을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평소 못다 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놓쳤던 일상의 사랑 내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은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양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미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 미사의 느낌이 아주 무겁습니다. 저의 컨디션이 이유인 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영향을 미치는 건 미사를 참례하는 신자분들의 마음이 무거울 때 집전하는 미사도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성찬 기도문을 바칠 때는 거양 성체와 성혈을 하기가 버겁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저는 생각합니다. '참례하는 분들의 마음만 느껴도 이렇게 무거울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죽하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전해주기 위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무게를 지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십니다. 때로는 무뎌지고 익숙해지며, 때때로 소외까지 시켜버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물음을 통해, 보다 하느님께 의탁하며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춘천교구 기억의 서랍을 열다 29

글: 강원교회사연구소

1953년 7월호 『Far East』

'손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강건한 체질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춘천에서 화재 속에서도 영웅적인 용기를 보여주었고, 긴 행군 동안에는 다른 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병자들과 노약자들을 도우셨다. 나의 어떤 말로도 그의 사제적 덕목을 충분히 찬양할 수 없다. 아일랜드는 이 선교사 아들을 진정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Far East』 1953년 8월호 기사 중 퀸란 주교의 글)

Monsignor Quinlan's cathedral in Chunchon as it appeared in the autumn of 1951 when the bodies of Fathers Collier and Reilly, killed by the Communists, were being re-interred beside it.

Arrest in Korea

By the Right Rev. Monsignor Quinlan

THE invasion of South Korea by the North Korean army began at 4 a.m. on Sunday, June 25, 1950. Our mission headquarters in Kangwando was only twelve miles from the border. During the 6 o'clock Mass we could hear the sound of the guns; before last Mass and Benediction were over at 11 o'clock the sounds had grown considerably louder. We thought at the time that it was just another of the Northern raids, and the radio had not yet given news of the general attack over the whole line.

Fathers Hayward and Burke.

Father Hayward and Father Patrick Burke had business in Seoul. I told them to go and attend to it. They were to return on Tuesday, and little they or we thought that on Monday the road back would be cut off by a strong, well-equipped Red army. Father Frank Canavan and I wished them a good journey and jokingly told them not to let the Reds get them. Then we settled down to catechism classes, examination and instruction of catechumens, and other routine Sunday classes.

BY 6 p.m. the radio carried the news of the invasion over the 38th line at all points. The townspeople grew uneasy and many began to flee by train and truck to Seoul. Father Tony Collier was stationed in a new mission in another part of the town. He visited us on Sunday evening and told us that a few Koreans near his mission had been wounded by stray bullets and that he had given them first-aid treatment. His mission was overlooking the bridge which spanned the river between the city and the oncoming Red army. I thought severe fighting would occur around the bridge and I asked Father Tony if it would not be better to abandon his mission and come to ours, which was a good distance away from the bridge. I shall never forget his answer. "I would prefer to stay with my own Christians. Short of a direct hit by a shell I shall be safe in the residence, and I may be able to help my people if the Reds capture the city. I'll be seeing you," he replied, and returned to his mission.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dear Father Tony, and not until I returned to Ireland was I to learn the story of his death.

THE FAR EAST

2

THEY DIED in KOREA

Nine priests of the Maynooth Mission were taken prisoners by the Communists in Korea. Only two, Msgr. Quinlan and Fr. Crosbie, survived their captivity. Father Canavan died in a North Korean internment camp. The other six priests were killed in the early days of the war.

Fr. Thomas Cusack.
Taken prisoner in Mokpo on July 24, 1950. Presumed to have been killed in Taejon on September 24, 1950.

Msgr. Patrick Brennan.
Taken prisoner in Mokpo on July 24, 1950. Presumed to have been killed in Taejon on September 24, 1950.

Fr. John O'Brien.
Taken prisoner in Mokpo on July 24, 1950. Presumed to have been killed in Taejon on September 24, 1950.

Fr. Anthony Collier.
Arrested and shot by the North Korean Communists in Chunchon, on June 27, 1950.

Fr. Patrick Reilly.
Arrested in his parish of Mokho by the Communists some time in late July, 1950, and shot shortly afterwards.

Fr. James Maglon.
Shot by the Communists about July 4, 1950, two days after they had occupied his parish of Samchok.

Fr. Francis Canavan.

Father Frank Canavan's death in a North Korean internment camp in December, 1950, was revealed by Monsignor Quinlan in Berlin when he arrived there on his way home from North Korea.

Father Canavan was stationed with Monsignor Quinlan in Chunchon, 12 miles south of the 38th Parallel,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on June 25, 1950. Along with the Monsignor he remained in Chunchon to meet the invading Communist forces and both priests were arrested on July 2. They were imprisoned in Chunchon and later on in Seoul and Pyongyang before being finally transferred in October to an internment camp at Manpo in the far north of Korea. On the evening of October 31 all the prisoners in the camp were told to pack their blankets and get ready to march. The march lasted until they reached a village called Chung-Kang on November 9 and during those ten days 98 people had died. Father Canavan had contracted pneumonia on the journey and although he was ill for some three or four weeks he seemed to be almost completely recovered by December 4. That evening, however, he had a relapse and on December 6 he died.

1915년 2월 15일 아일랜드의 골웨이(Galway)에서 출생한 손 프란치스코(Francis Canavan) 신부는 1940년 12월 21일 사제품을 받았다. 1949년 한국에 입국, 1950년 죽림동 본당의 보좌신부로 부임하면서 한국에서의 사목 생활을 시작하였다.

퀸란 주교가 작성한 한국전쟁에 대한 회고 속에 손 프란치스코 신부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있다. 전쟁 직후 퀸란 주교는 손 프란치스코 신부에게 먼저 피신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손 신부는 자신이 택한 선교지에서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고자 남았다. 그 결과 퀸란 주교와 함께 포로로 붙잡혀 '죽음의 행진' 에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폐렴에 걸려 12월 6일 수용소에서 사제로서의 짧은 삶을 마치고 하느님의 품에 안겼다.

손 프란치스코 신부는 '죽음의 행진' 동안 늙고 병든 이들을 도우며 선행을 실천하였고, 폐렴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나는 성탄절 만찬을 천국에서 먹을 것입니다." 라는 신앙고백을 남겼다. 이러한 신앙고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하고자 했던 그의 강인하고 숭고한 영성을 보여준다.

손 프란치스코 신부의 묘는 현재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면에 있으며, 2009년 죽림동 성당 뒤 성직자묘역에 가묘를 마련하였다. 춘천교구는 손 프란치스코 신부를 포함하여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위해 2011년 10월부터 시복시성 기도를 바치며 그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고 있다.

2025년 부제 서품식

부제 수품자: 정환우 요셉(노암동) · 정의빈 제라드(연봉)

2025년 12월 9일(화) 오후 2시, 주교좌 죽림동 성당에서 김주영 시몬 주교의 주례로 2025년 부제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서품식에는 교구 사제단을 비롯해 수품자 가족과 수도자, 신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새 부제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김주영 시몬 주교는 수품자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랑하며 주님께 봉사하듯이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라고 하시며 더불어 수품자들을 위해 기도해 준 이들과 서품식을 위해 애써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서품식을 마쳤습니다.

† 수품자들이 앞으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교회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2. 26.(금) **스테파노**
원용훈·김도형·윤민열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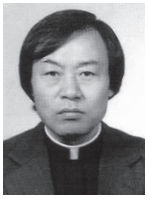
12. 27.(토) **요한 사도**
박영근·강성구·안기민·김종광·박재우
정홍·김현국 신부

본 당 알 림

주교좌 죽림동 성당 상설 고해소
매 (목) 14:00~17:30

영동지구 상설 고해소
매 (금) 14~17시, 임당동 성당

송성식 토마스 신부 37주기



생년월일 : 1941. 11. 16.
사제품 : 1968. 05. 11.
선 종 : 1988. 12. 25.

구인란 토마스 주교 55주기

생년월일 : 1896. 09. 13.
주교품 : 1955. 11. 23.
선 종 : 1970. 12. 31.

2025년 춘천교구 대림 특강
1강: 그리스도인의 품위
-배광하 치리아코 신부
2강: 육화의 신비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춘천교구 유튜브 채널 ▲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가톨릭중앙의료원 치과 무료 진료
12. 21.(주일) 13시, 가산예리코클리닉

솔모루 이주민센터 성탄 대축일 밤미사
12. 24.(수) 21시

솔모루 이주민센터 성탄 대축일 낮미사
12. 25.(목) 11시

춘천 이주민센터 성탄 대축일 낮미사
12. 25.(목) 11시

성령쇄신 봉사회기도회
매 (화) 19~22시, 소양로 성당/미사: 19시
☎ 010-2962-4051 회장

묵주기도 100단 봉헌 및 감사 미사
1. 2.(금) 19시, 화현 이벽 성지
오시는 길: 화동로 447(이벽 유적지)
☎ 031-531-2234 화현 이벽 성지

강원대학교병원 원목실
위치: 어린이병동 지하 1층
미사: 매(주일) 10시/어린이병동2층 네트워크실
☎ 033-258-9487, 010-2690-8790

좋은 이웃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 신앙, 부부, 자녀, 아동 상담 실시
춘천: 월~금(10~17시)
☎ 033-253-6006

강릉아산병원 원목실
위치: 신관 지하 1층 / 미사: 매 (토) 14시, 신관 5층 2세미나실 ☎ 033-641-8388

포콜라레 운동(국제마리아사업회)생활말씀 모임
홍천 여성: 셋째주 (수) 14시, 성산 성당 ☎ 010-8635-9177 / 화천 여성: 셋째주 화천 성당 교중미사 후 ☎ 010-4131-3241
학생 및 청소년 ☎ 010-5178-3686

2025년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안내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2025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의3 4항의 근거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의 수기 발급(종이 기부금영수증, 본당양업상 출력 포함)이 불가**합니다. (2024년도분까지 출력은 가능) 따라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간소화 동의한 신자의 기부금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에 한해서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업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업명의 기부금영수증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발급 가능하며 교구에서 매월 10일 기준으로 등록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부자 변경 불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기부금 수납 현황을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납부자 및 책정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 발급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기부자명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당 사무실을 통해'전자기부금제출 동의서' 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간소화 동의서' 에 동의한 신자는 '전자기부금제출 동의서' 로 자동 동의됩니다.)

성소모임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선한목자예수수녀회	12. 28.(주일) 14~17시, 서울 길음동 본원	010-4882-9674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서울관구	12. 28.(주일) 10~15시, 서울관구 본원(사당역 1번 출구)	010-7542-7845	http://icaritas.or.kr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월 1회, 살레시오회 관구(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3층)	0507-1306-1505	돈보스코 영성에 따라 살고 싶은 분(40세 미만 미혼여성)

춘천 장례식장
교구와 장례 복지 협약 체결
관+수의 무료제공
사망진단서 자체 발급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 · 김경옥 비르짓다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인 준 시 설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분야: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1명),
시간제 청소년동반자(1명)
서류: 12. 23.(월) 18시까지/면접: 12. 24.(수) 14시
상세내용 홈페이지(www.8181388.co.kr)
☎ 033-818-1389

강릉시 주·단기 이용자(입소자) 모집
대상: 강릉시 거주 발달장애인
장애인주간이용(나래교실)/단기거주(푸른나래)
☎ 033-652-5041 문의

어우리단기보호소 조리사 모집
60세 이하 자격증 소지 무관/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우편, 이메일 uwoori0625@hanmail.net
☎ 033-264-0384 / loveuwoori.com

보듬지역아동센터 조리사 모집
학기중 14:30~18:30 / 방학중 10:30~14:30(시간조정가능) 주 5일 4시간 근무
급여: 1,053,150원 / 퇴직연금 / 4대보험
☎ 033-263-0101

일 반 알 림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 (38만원), 전국 2박 3일 (30만원)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20만원)
일본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2일〉
26년 3. 28. / 599만원 (+2200유로)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catravel.co.kr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 20.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550만원)
2. 2.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2. 3. 일본(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55만원)
3. 17.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495만원)
4. 6.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3일 (550만원)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3. 6.~8.
3박 4일: 1. 7.~11.(4박 5일) / 2. 7.~10.
8박 9일: 12. 26.~1. 3. / 26. 1. 7.~1. 15.
40일: 26. 4. 6.~5. 15.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 010-4906-5722, 031-953-6932 신청

제주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넘이·해돋이): 12. 31.~1. 3.
제주순례: 1. 9.~11./1. 23.~25./2. 6.~8.
2. 27.~3. 1./3. 27.~29./4. 5.~7./4. 18.~20.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 15.~18./1. 30.~2. 1.
추자도성지순례: 3. 5.~8./3. 12.~14./3. 18.~21.
☎ 064-732-4702 면형의 집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2. 14.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 구정연휴
3. 10.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5일 160만원-대한항공)
3. 24. 튀르키예, 그리스(12일 480만원)
4. 7.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50만원)
5. 12.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90만원)KE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2026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접수: 11. 10.(월)~26. 2. 20.(금)
☎ 02-745-8339 ci.catholic.or.kr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신년축복 성령대회
1. 10.(토) 14시~11.(주일) 14시, 초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청소년무료) 1박2일(3식)
셔틀버스 운행(조치원역, 청주버스터미널)
☎ 043-213-9103, 010-5482-6744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연중피정 접수중)
자연순례/한라산: 1. 10.~12./1. 16.~18./1. 22.~24.
1. 26.~28./2. 1.~3./2. 7.~9./2. 21.~23./2. 26.~28.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영신수련 대침묵피정
12. 26.(금)~1. 4.(주일)/1. 8.(목)~1. 17.(토)
1. 23.(금)~2. 1.(주일), 예수마음배움터
☎ 02-3276-7794 문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이철형 세무사사무소(속초)
양도·상속·증여/세무상담·신고
재산 컨설팅/세무조사 대응
☎ 636-9070, 010-9880-9070
이철형 토마스

오티콘 보청기 속초점
무료 청력 검사 / 이명 난청 상담
131만원 보조금 / 출장 방문
☎ 010-5709-2112
김성현 루치오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 다미아노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춘천주보 상호광고 접수 모집
광고기간: 3개월(12주) / 6개월(24주)
구비서류: 교적사본(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필수), 광고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교구 홈페이지 www.cccatholic.or.kr → 간행물 → 주보 알림/광고신청 → 상호광고 신청서
*금액 및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참고해주세요!
☎ 033-240-6012 홍보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 1,21)